‘청춘셰프 오픈’ 코레일 청년창업 견인

대전역에 ‘스테이션 1호’ 개점
쁘띠박스, 한입도시락 등 판매
철도고객 편의 증진 등 기대도



코레일이 철도고객 편의를 위해 추진한 ‘스테이션 청춘셰프’의 1호점이 대전역에서 개점했다. 청춘셰프 1호점 쁘띠박스 직원들이 최연혜 코레일 사장(왼쪽 두 번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레일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철도고객 편의를 위해 진행한 ‘스테이션 청춘셰프’의 1호점이 대전역에서 개점했다.

스테이션 청춘셰프는 코레일이 ‘청춘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철도 여행객을 위한 참신한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청년 셰프를 발굴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총 35개팀이 참여했으며, 코레일은 도시락 콘테스트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5개팀을 선정했고, 철도역사에 매장을 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에 개점한 청춘셰프 1호점은 최종 선발된 팀 가운데 우송대학교 졸업생 3명(김세준, 조규훈, 권성록)으로 구성된 ‘쁘띠박스’팀이다. 주된 판매 메뉴는 ‘한입도시락’과 ‘라이스 크로켓’ 등이다.

쁘띠박스 김세준씨는 “창업에 관심이 있던 시기에 코레일이 기회를 준다고 해 응모했는데, 창업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됐다”며 “기존 매장에선 볼 수 없었던 톡톡 튀는 색다른 메뉴들로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는 철도역의 명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세종·충남 신설법인 ‘급증’

작년 10월比 각 24.1·18.1%⬆
부동산임대업 설립 증가 ‘최다’

세종과 충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내 신설법인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국내 신설법인은 작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30세 미만의 법인설립이 가장 크게 늘었다.

1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10월 국내 신설법인은 작년 동월 대비 3.4%(260개) 증가한 7856개를 기록, 작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작년 동월 대비 세종(24.1%)과 충남(18.1%)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이 증가했고, 대전은 5.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세종, 충남, 대전의 신설법인은 각각 36개, 268개, 180개로 조사됐다.

10월 국내 신설법인의 주요 특징을 보면, 업종별로 도소매업(1681개, 21.4%), 제조업(1663개, 21.2%), 부동산임대업(861개, 11.0%), 건설업(751개, 9.6%) 등의 순으로 설립됐고, 작년 동월 대비 증가규모 측면에서 부동산임대업(152개), 건설업(96개), 금융보험업(67개) 등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대표자 연령을 기준으로는 40대(2986개, 38.0%), 50대(2040개, 26.0%), 30대(1736개, 22.1%)의 순으로 설립됐고, 전년 동월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한 가운데, 30세 미만 법인설립이 가장 크게 증가(128개)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10월 국내 누계 신설법인은 총 7만7651개로 작년 동기 대비 10.7%(749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만6807개, 21.6%), 도소매업(1만6558개, 21.3%), 건설업(8317개, 10.7%), 부동산임대업(7875개, 10.1%) 등의 순으로 설립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10월 신설법인 증가율은 작년 동월 대비 3.4%로 전월(11.3%)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됐다”면서 “이는 제조업 신설법인 증가율의 감소와 서비스업 증가세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학교급식전자조달 2조 달성

2010년 개소 후 식재료 등 구매 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사이버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식재료 구매계약 규모가 2조원을 넘었다고 1일 밝혔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2010년 8월에 개소해 2013년 1조 2000억, 올해 거래목표 1조 9000억원을 넘어서 2조원을 달성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2011년 행정안전부의 지정정보처리장치 지정·고시를 성장의 기반으로 전자조달의 기능뿐만 아니라 급식 안전성의 전문적 관리 역할을 수행해 현재의 성과를 이루게 됐다.

특히,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거래액 2조원은 전체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의 62%나 되는 규모로 향후 지역별 이용 확대에 따라 거래규모가 더욱 증가 될 예정이다.

박수영 기자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공개된다

국토부, 10년경과·3천㎡이상 건물 … 효율·성능 개선 추진

앞으로는 10년 경과된 3000㎡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소비가 집중되는 연면적 3000㎡ 이상,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6개 유형(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의 공공건축물 2409동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성능 개선이 필요한 에너지 다소비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건축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국공립병원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건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해 국정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와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에너지 소비량 공개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과거 3년간 사용 에너지를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로 환산한 뒤 공개해 에너지 사용 현황 파악이 쉬워진다.

또한,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상위 50% 이내인 건축물을 선별해 에너지성능이 미흡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성능개선을 요구하는 등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성능개선을 요구받은 건축물은 현황조사 및 사업계획 검토, 시공관리 등의 기술 지원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30% 이상 개선하는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매 분기별 에너지 소비량 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좀 더 다양한 분석이 이뤄지고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 추진으로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선도해 민간으로 확산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섬유산업 발전 남북경협 필요”

中企 58.7% “협력 도움 될 것”

국내 섬유 중소기업 절반이 국내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남북 경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섬유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 내 중소기업전용 섬유클러스터 조성 사전 수요조사’결과 58.7%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 국내 섬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조사응답 업체의 49.0%가 현재 남북관계가 나아지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8.25 합의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개선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에 중소기업전용 섬유클러스터가 중국 청도공단이나 베트남의 탄투언공단과 유사하거나 나은 조건으로 조성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힌 기업 또한 40%에 달했다.

특히 남북경협의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84.6%가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북한 내 중기전용 섬유클러스터 참여의향 또한 64.1%에 달하는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내 중기전용 섬유클러스터 조성시 지리상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는 72.3%가 ‘개성’을 선택했다.

또한, 참여의향이 있는 기업들은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 활용’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5.8%가 클러스터 입주의 기대효과로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 활용’을 꼽았고, 이어 ‘국내의 고임금·인력난·부지난 해결’(44.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과반이상인 57.3%의 섬유 중소기업들은 북한 내 중기전용 섬유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위해서 ‘북한의 불안한 정치상황과 남북관계 경색’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 용수, 통신 등 인프라 구축’(44.3%), ‘클러스터 시설자금 저리 대출’(26.7%),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25.3%) 등이 북한 내 중기전용 섬유클러스터 조성시 필요한 정부지원 대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소공인 특화자금’ 융자지원

대전중진공, 10인 미만 업체 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정연도)는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연말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달간 ‘소공인 특화자금’을 집중 융자지원 한다고 1일 밝혔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업력에 관계없이 상시종업원수 10인 미만의 기계·금속가공, 인쇄, 의류·섬유 등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원부자재 구입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며, 대출 한도 1억원, 기간은 총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박병주 기자

▼이코노미 쥼in

수소이용 전기전도도 향상기술 개발

최대 1011배 이상 증가

수소를 이용해 전기전도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고효율 반도체와 투명 전극 개발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은 아주대 서형탁 교수와 한양대 최덕균 교수 공동 연구팀이 금속산화물 반도체 표면에 흡착된 수분을 자외선으로 광분해 한 후 발생시킨 수소로 전기전도도를 최대 1011배 이상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금속산화물이란 금속 원자에 산소가 결합해 형성된 물질로 절연체와 반도체의 전기전도 특성 가지며, 금속산화물 박막은 투명해 전기전도 조절이 쉬워 디스플레이 등에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금속산화물을 넓은 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처리가 필요해 상온 공정이 필수인 유연(flexible) 소자에 적용할 수 없었다.

이는 산화물 표면에 붙은 물 분자가 자외선에 의해 수소 라디컬(수소 분자/원자가 높은 에너지로 들뜬 상태)이 돼 퍼져나가며 박막 내 원자들 사이의 틈 또는 산소 원자가 빠져나간 자리에서 기존 원소들과 결합해 전자의 농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건축설계 용역 우수업체 인센티브

조달청, 평가지침 시행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건축설계 용역의 계약 이행(설계) 과정을 평가해 우수한 설계업체를 우대하는 내용의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2016년 1월부터 발주하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과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의 건축설계 용역이 평가대상이 되며, 연간 100여건(약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우수설계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발주되는 설계공모 심사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건축설계 품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공모 심사시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부터 적용하되 시행성과를 검토해 향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설계 용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책임건축사 참여 정도, 일정 및 예산 준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용역 건별 2회(중간설계, 실시설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은 조달청 및 수요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내실 있는 평가를 유도한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축설계는 설계과정이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지침 제정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 업체가 우대받는 제도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열풍기 TigerKing 타이거킹 | 임대/판매전문점
건설현장 / 농수축산물 건조용
타이거 킹 열풍건조기는 강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 세련된 디자인 선택
– 제품이동의 편리성
– 소화시 자체 냉각기능
– 외부온도를 감지하는 희망온도 조절장치 채택
– 점화/과열/과부하 안정장치
– 반영구적인 초내열 스테인레스 버너 채택

제 품	연료소비량 (L/Hr)	최대발열량 (Kcal/h)	탱크용량 (L)	난방면적 (㎡)
TK-K50	4.5	50,000	50	100평
TK-K150	9	100,000	80	200평

*자매모델 : TK-K20, TK-K30, TK-K120



*온도조절장치 *3중 안정장치 *높낮이 조절장치
*초내열 스텐레스버너 *탈부착 에어바퀴 * 순수국산제품

가정용 대성 원적외선히터
한솔 펠릿 열풍스토브



적은 연료로
쾌적한 난방을 실현한
최고의 난방기
유지비 저렴
냄새없음

무색무취!
연료비 절약되는
펠릿열풍스토브!
등유히터대비
50% 연료비 절감!
설치권장장소 :
가정집, 식당, 헨펜, 교회, 사찰, 별장 등



A+에이플러스 Since 2004 냉난방 / 화레이 히터 총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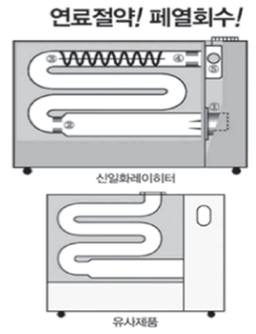
대한민국대표·원적외선히터
원조 화레이
모델하우스
각종행사 임대/판매

“친환경적인 화레이만의 기술이 고객을 찾아갑니다”



특장점 및 특수 연소시스템의 효과
■2중연소 담체장치, 선회형 열교환기, 공해저감 촉매장치
■완전연소(연료절약, 냄새제거)
■과열 방지장치, 시간조절(꺼짐예약), 화염감지 안전장치
■전도장치(감지센서), 리모컨조정(켜짐,꺼짐)
■연료부족 차단장치, 연료절약(성능증가)
■2연속, 30분, 1시간, 3시간 조절 강,약 조절기능
■비상운전 기능
■과열차단 이중 안전장치
■지진 등 심한 진동감지기능
■에러발생 표시기능
■낙뢰 발생시 회로보호기능
■순간 정전시 연속운전기능

완전연소! 공해저감!
연료절약! 페열회수!



■유사제품 대비 15~25% 에너지절약
[시간당 연료 소모량 비교]

에너지 절약 40~65%
고유가 시대에는 화레이 난방기가 좋습니다!!
•2002년 특허대상 최우수상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제품 •고유가시대 최고의 열효율 최저 유지비
•유사제품 대비 15~25% 에너지절약 •2005, 2008년 전국판매 1위 전문점
고유가 시대! 연료절약형 난방기 화레이 원적외선 히터와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겨울 난방을 해결하세요.

대전 042)535-1508 / 천안 041)552-2930 / 청주 043)231-7620